

천 만명 돌파 '미스터트롯' TTA 경쟁력



민경숙 | TNMS 대표
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
min.gs@tnms.tv

TV조선 '내일은 미스터트롯'(이하 미스터트롯)이 지난해 트로트 신 열풍을 일으켰던 TV조선 '내일은 미스트롯'(이하 미스트롯)보다 훨씬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. 미스터트롯은 2020년 1월 2일 첫 방송에서 1부 시청률 6.5%, 2부 9.9%(TNMS, 유료가입)를 기록하며 지난해 미스트롯이 첫 방송 때 기록했던 시청률 4.7% 보다 높은 시청률로 출발했다.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편성된 MBN '당신이 바로 보이스퀸' 시청률을 단번에 누르며 목요일 비지상과 1위로 올라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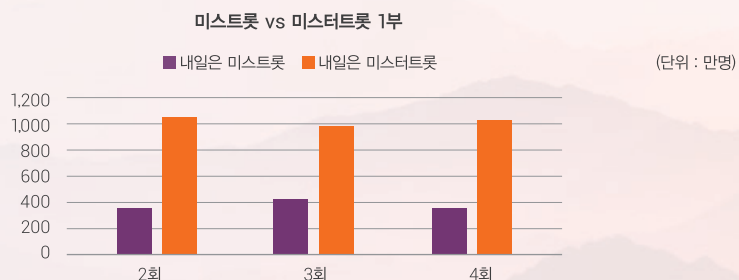
통합시청자 수 데이터 TTA(TV Total Audience)에서도 미스터트롯의 경쟁력은 크게 돋보이고 있다. 미스터트롯의 최근 방영 횟차인 4회까지의 TTA 데이터를 미스트롯과 비교해보면 미스터트롯의 경쟁력은 본방에서 뿐만 아니라 비실시간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(미스트롯은 2회부터 1·2부로 나눠 방송하기 시작했음)

미스터트롯은 2회 방송에서 이미 본방송과 재방송 그리고 VOD를 통해 시청한 시청자 수가 천 만명을 돌파했으며, 이는 지난해 미스트롯이 2회에서 36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. 미스트롯은 10회에 이르러 천 만명을 돌파했다.



사진 출처 : TV조선 '내일은 미스터트롯'

〈표〉 TTA 데이터로 본 미스터트롯 경쟁력



* 재방송에서는 1부, 2부가 나눠지지 않아 재방송 시청자 수는 1부에 포함시킴